

# “청소년 교류 확대...한·중 우호적 관계 발전”



꾸지치 중국주광주총영사(왼쪽)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 이정선 시교육감·중국주광주총영사 국제교류 협의 청소년·학교·교사 범위 확대 방안 등 다각적 논의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최근 시교육청에서 중국주광주총영사 꾸지치 일행을 만나 양국 간 청소년 국제교류 방안 등을 논의했다.

1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만남은 지난 2월 20일 부임한 중국주광주총영사측 요청으로 이뤄졌다.

이정선 교육감과 꾸지치 총영사, 저우지화 부총영사, 항황 영사 등은 교육감실에서 차담

회 형식으로 총영사의 부임을 축하하며 양국의 우호와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꾸지치 총영사는 “이정선 교육감이 취임 이후 광주 학생들을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교류 사업을 펼치는 것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며 “역사, 문화적으로 가까운 양국이 더욱 우호적인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 국제교류가 활발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양국 간 청소년 국제교류를 포함한 학교, 교사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됐고, 양국이 서로 협력해 유의미한 국제교류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시교육청은 동북아 국제교류 프로그램 등으로 중국과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국주광주총영사관과 긴밀히 협조해 교사, 학생 교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양국의 교육·문화 교류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su@gwangnam.co.kr

# PEOPLE

2024년 3월 18일 월요일



## 김현지 전남농기원 연구사 친환경농업 유공 장관 표창 받아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박흥제) 김현지 연구사가 제9회 ‘흙의 날’을 맞아 삶의 터전이자 농업의 기반인 흙을 소중하게 가꾸어 보존하고, 농림축산식품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17일 밝혔다.

‘흙의 날’은 정부가 흙의 소중함과 보전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3월 11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했다. 올해 흙의 날 주제는 ‘건강한 흙, 행복한 지구’로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흙이 건강해야 지구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전남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전국의 56%를 차지할 정도로 친환경농업의 메카와 브랜드를 다져가고 있다.

김 연구사는 18년 동안 전남의 농업환경 개선을 위해 토양검정 및 농업환경변동조사, 비료사용 처방 기준 설정, 왕우렁이 자원화 기술 개발, 친환경 제초기술 개발 등과 같은 지속 가능한 토양관리 기술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김현지 연구사는 “농업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해야 할 중요한 분야인 만큼, 공동연구를 강화해 온실가스 저감과 친환경 농자재 개발 등 저탄소 지속농업 기술 연구개발에 집중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한기 기자 gnnews1@



## 송원대·(주)국민은행 공동발전 협약

학교법인 송원대학교와 (주)국민은행은 지난 15일 송원관 3층 이사장실에서 상호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송원대 고경주 이사장, 정대훈 사무처장, 최수태 총장을 비롯한 내빈과 (주)국민은행 진원동 정경인 지점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5년간 2억원의 발전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경주 송원대 이사장은 “국민은행과 뜻깊은 업무협약을 맺어 감사하다”며 “양 기관의 공동 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su@gwangnam.co.kr



여주시 여성가족과와 광양시 아동보육과 직원들은 상대 지자체에 각 310만원을 기부했다.

## 여주시-광양시, 고향사랑 상호기부 행렬

여주시와 광양시의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17일 여주시에 따르면 최근 시 여성가족과와 광양시 아동보육과 직원이 상대 지자체에 각 310만원을 기부했다.

평소 업무적으로 교류가 많은 두 과의 직원들은 지역발전엔 큰 힘이 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에 깊이 공감, 상생발전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영화 여주시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상호기부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은 물

론 양 지자체가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까지는 전액을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이 공제된다.

기부금액의 30% 이내의 특산품도 받을 수 있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 또는 전국 농업장구를 통해 가능하다. 여수=송원근 기자



광주도시공사는 최근 대구도시개발공사와 달빛동맹 활성화 및 사회공헌활동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광주도시공사-대구도시개발공사 달빛동맹 강화

광주도시공사(사장 정민곤)는 최근 대구도시개발공사와 달빛동맹 활성화 및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상호협력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달빛동맹은 대구의 옛 지명인 달구벌의 첫 글자와 광주를 나타내는 빛고을의 첫 글자에서 딴 것이다.

협약식에는 정민곤 광주도시공사 사장과 정명식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해, 양 공사 노조위원장과 임직원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

적 책임 실현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형성을 위해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 공유·발급 추진 △사회공헌활동 인력·정보 교류 활성화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를 통한 지역 현안 해결 △재난 대비 및 재난 발생 시 신속 대응 시스템 구축·실행 등을 약속했다.

정민곤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달빛동맹 강화를 위한 대구도시개발공사와의 협약은 뜻깊은 자리”라며 “항우 적극적인 자세로 영호남간의 교류 활성화에 힘을 보태 지역 화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15일 서구청 지하2층 민방위실전센터에서 2024년 1분기 광주 서구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민·관·군·경·소방으로 구성된 위원 20명이 참석했다. 사진제공=광주시 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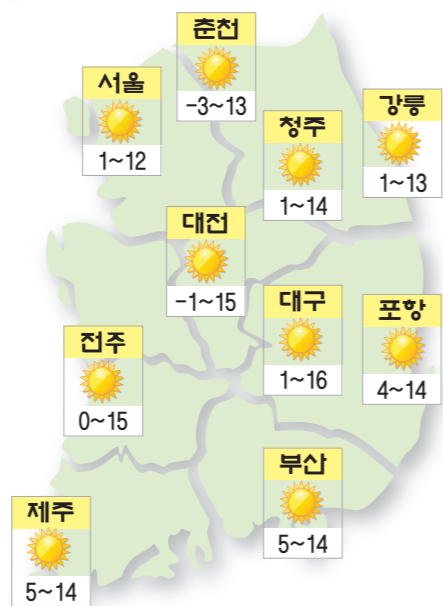


동구,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제9대 의장도시인 광주 서구(구청장 임태)가 최근 대한민국 건강도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한 제18차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KHCPC) 정기총회와 업무협약 기관 공동세미나를 진행했다. 사진제공=광주시 동구

## 날씨

해질 06:39   달뜨기 12:01  
새벽 18:43   일출 02:38

광주	☀️	1~16
목포	☀️	2~13
여수	☀️	4~13
순천	☀️	2~15
구례	☀️	0~16
광주	☀️	0~15
함평	☀️	3~15
곡성	☀️	5~10
고흥	☀️	1~14
진안	☀️	3~12



19일(화)	20일(수)	21일(목)	22일(금)
☀️	☀️	☀️	☀️
2~17	0~13	-2~13	-2~16

목포	밀물(고)	08:27 / 20:12
	썰물(저)	00:26 / 14:24
여수	밀물(고)	03:24 / 15:27
	썰물(저)	10:45 / 22:02

## 운세 (음력 2월 9일)

- 쥐: 48년생 자녀 진로 신중하자, 60년생 매매가 쉽게 이뤄지니 큰 이익이 있겠다, 72년생 차량 탑승을 삼가는 것이 좋겠다, 84년생 날로 번창하니 금전과 명예가 늘어났다, 96년생 원하는 학교에 합격할 수 있다
- 토끼: 51년생 막혔던 금전운통이 시원하게 풀린다, 63년생 거리가 잘 풀려나기니 크게 성공, 75년생 격식에 맞아야 제 빛을 발휘라, 87년생 손윗사람에게 시비하지 마라, 99년생 연인과 함께 하면 관재를 불러온다
- 말: 54년생 한국적이 허전한 것은 무슨 연유일까, 66년생 배우자의 이성에게 한눈팔지 마라, 78년생 성사하려면 상대를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90년생 지인 부탁에 일을 크게 벌이지는 마라
- 닭: 57년생 새로운 일에 도전하면 좋은 일이 생길 것, 69년생 기대하지 않았던 이익이 따를 수 있는 날, 81년생 대화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오해가 생긴다, 93년생 마음이 중심이 없고 갈팡질팡하겠다

- 소: 49년생 금전을 융통해도 일을 이루지 못한다, 61년생 손실이 생겨 이루지 못하니 안타깝다, 73년생 모든 것에는 시와 때가 있는 법, 85년생 새 술은 새 부대에 놓아야 한다, 97년생 다른 자칫하면 준비해도 합격할 수 있다
- 송: 52년생 가는 곳마다 이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 64년생 텃밭에 전에 너를 다시 한번 돌아보자, 76년생 거기에 지치지 신경은 건강을 해친다, 88년생 지인이 전업을 권하면 거절하자
- 양: 55년생 금전 운통이 막히는 날, 67년생 가족과 함께 여행하기 좋은 시기, 79년생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 91년생 연인과 대체로 원만하겠다
- 개: 58년생 자녀에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다, 70년생 마음이 잘 맞는 지인과 상의 하십시오, 82년생 아무 걱정이 없는 무난한 하루, 94년생 서둘러서 되는 일은 없다

- 호랑이: 50년생 만족할 만한 결과로 일이 마무리된다, 62년생 자녀 일 크게 벌이지 마라, 74년생 제대로 발휘해야 할 때가 됐다, 86년생 대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만 한다, 98년생 일 서두르면 눈앞도 보이지 않는다
- 뱀: 53년생 조그마한 인연이 많은 날, 65년생 이로운 일과 간사한 꾀로 속이고자 한다, 77년생 많고 적고 간에 지금은 모아야 할 때, 89년생 상황에 만족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원숭이: 56년생 금전 투자를 금물이다, 68년생 직장내 다 끝난 일이 다시 불거진다, 80년생 결과에 연연하니 실력 발휘가 안된다, 92년생 근본적으로 이성과 결부돼 있음을 알자
- 돼지: 59년생 추진하기 앞서 마음의 안정 찾아야 한다, 71년생 금전운이 길하나 곧 나가기 쉽다, 83년생 소문 없이 나타나니 맞이할 체비하라, 95년생 가까운 선후배를 만나보십시오



## 강은주 교수의 시주·풍수·작명